

공동체 소식

■ 사순시기 안내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은 고행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맞이 위해 집 안팎을 깨끗이 정리하듯 죽음과 부활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성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전례 중 기쁨을 상징하는 요소인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바치지 않습니다. 사제의 제의도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자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사순 제4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맞본다는 의미에서 장미색 제의를 입기도 합니다.

주일미사 35분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사순기간 개별적으로 매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권장합니다. 아직까지 **고해성사를 보지 못해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사순시기에 **고해성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금육과 단식 규정은 성당 입구 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Rice bowl(하루\$1씩 40일) 가져가셔서 부활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 판공성사 및 미사 안내

3월 31일(일) 미사 전 10시30분~10시55분까지 있습니다.

미사/성사집전: 김상현 사도요한 신부님 St. Louis(St. Andrew Kim Parish)

■ One Faith One Family One Future In CHRIST

캠페인 기도문을 미사 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설명은 지난 주보와 함께 배포된 교구장 주교님 편지를 참조해 주십시오.(영문/한글번역본)

■ 평신도협의회 안내

24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예비신자 교리 없습니다.

부활 판공성사 관계로 3월 31일(일) 예비신자 교리 없습니다.

■ 주일학교 교리 안내

주일 오전 10시-10시 30분 나자렛관에서 교리 교육있습니다. 10시 30분 이후 성당으로 이동하여 십자가의 길 기도에 함께 합니다.

Camp Tekakwitha 주일학교 여름캠프 신청바랍니다(캔사스 대교구 주관)

■ 중남부 남성 제16차 꾸르실료 신청 안내

일시 : 5월 30일(목) 오후 5시 ~ 6월 2일(일) 오후 5시

장소 : Formation Center 901 S. Madison Ave. Dallas, TX, 75208

대표지도사제 : 고봉호 베드로 신부님

회비 : \$350

본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중에 꾸르실료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례부에 참가 신청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24가정)

■ CRS 2차 헌금 안내

3월 31일(일) 카톨릭 구제회 (Catholic Relief Services, CRS)를 위한 2차 헌금있습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목	성 체	파 견
금 주	118	217	174	119
차 주	115	221	160	177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아네스)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차 주	김주연(세실리아)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정예진(한나) 김정빈(바오로)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원(안젤라) 김지안(요한)

■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라파엘), 조진환(베드로)
차 주	홍순익(마르띠노), 김동술(요한)

■ 애찬 봉사자

금 주	7조: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 주	8조: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들딸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끊임없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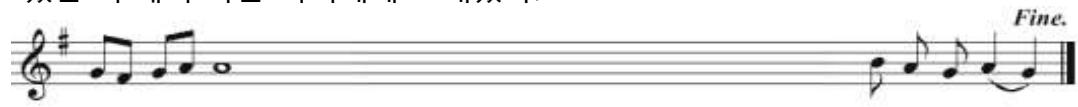
그림 묵상

야곱의 우물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14)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1-8ㄱㄷ.13-15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화 답 송 :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0,1-6.10-12
<모세와 함께한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9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생명의 말씀

하느님 알아가기,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유다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느님 체험은 이집트 탈출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셨는지에 대해 유다 전통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그 사건을 이끌게 될 모세가 하느님과 처음으로 조우하는 장면인데, 바로 오늘 첫째 독서의 대목입니다.

양 떼를 몰고 호렙으로 간 모세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게 된 하느님은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정작 모세는 몹시 난처해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느님을 잊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이사악-야곱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명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탈출기에는 여러 번에 걸쳐 하느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탈출기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창세기의 성조들보다 하느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학적 갈등과 긴장을 효과 없이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현재에서 성경이 전해주는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하느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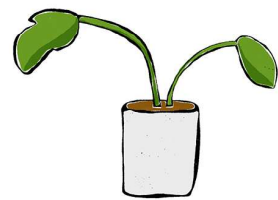
그렇게 시작된 탈출과 해방의 역사를 바오로는 코린토 1서에서 그리스도론에 바탕하여 재해석합니다. 바오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고,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다고 해석합니다(신학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을 예형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본보기(예형)였다고 바오로는 해석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영성체를 했다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전례적 상징이 완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오로

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린토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천천히 하느님을 알아왔듯이, 이제 막 생겨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하느님 백성들도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갑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면서 우리는 가끔 질문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열매... 그 열매는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열매이겠지요?!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식물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

아. 시들시들하네. 원래부터 별로였나 보다. 가져다 버려야겠다.

아. 시들시들하네. 지금 자리가 너무 햇빛이 들지 않나? 아니면, 물을 더 자주 주어야 하나? 죽지 말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성가대 봉사

저는 전역 후 군종교구 공식 단체인 맛숨성가대에 가입했습니다. 맛숨(Ad Sum)은 라틴어로 '예, 여기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단체의 소명을 잘 표현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맛숨성가대도 국군장병이 있는 곳이라면 전·후방 어디라도 찾아가는 성가대입니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군종신부님들께도 힘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성가를 통해 하느님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맛숨(Ad sum)'은 주 활동층이 젊은 청·장년들이지만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단원들도 있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다양한 우리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성가를 통해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도와 줄 수 있다는 소명과 봉사 정신입니다. 특히 힘든 병영 생활에 지친 병사들과 함께 다시금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들의 영성도 깊어짐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가의 내용은 모두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 단원들도 주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감동합니다. 또한 우리의 합창을 듣는 장병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미사 봉헌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여러 가지 일화도 그간 참 많았습니다. 한 거울에 난방이 되질 않는 곳에서 반주자가 손가락이 얼어 호호 불어가며 손을 녹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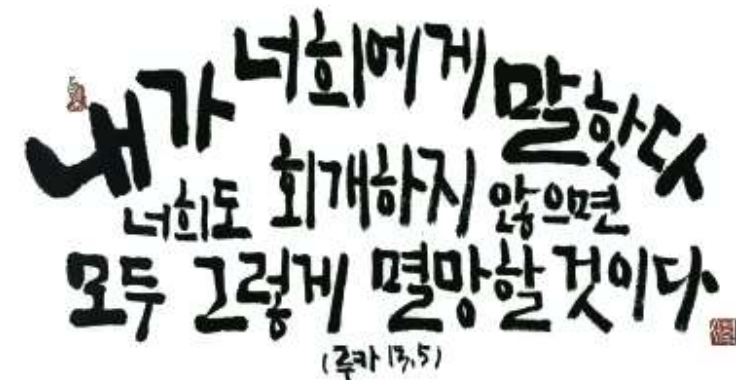
하는 일도 있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무반주로 성가를 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부산에 있는 공군성당을 방문했을 때는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취소되어 모두 급히 기차표를 구하고 서울까지 입석으로 올라온 기억도 납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봉사 여정에서 느낀 각자의 신앙 고백 나눔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노래를 연습할 때는 성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 깊이 파고들어 어느순간 목이 메어 오며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성가를 통한 묵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됩니다. 우리 성가대가 성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느끼며 신자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회개의 때, 이 사순의 기도 여정을 통해 부활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일상의 반복으로 지친 단원들이 늦은 저녁까지 연습하고 기쁜 얼굴로 집에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가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백윤형 알베르토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서영숙 마르티나